준비된 중독자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쉬운 성격)

알코올 중독은 한가지의 단일 질환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부모의 양육 방식, 그로부터 습득되어진 성격의 유형, 그리고 인생의 경험 및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개인적인 곤란이 한데 어울러져 만들어 내는 '잡소리 나는 오케스트라'이다.

이는 술만 마셔 댄다면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심한 부상으로 모르핀(아편)을 매일 수없이 맞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군인들이 후일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그 중 극소수만이 모르핀 중독자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약물 중독 환자들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미 '준비되어진' 상태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경 정신과적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의 '예비 주자'로 지목하는 몇 가지 성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장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자신이 스스로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없는 부적합 성격, 둘째, 자신의 불만과 공격적 충동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시키는데 익숙해져 있는 피동 공격형 성격, 셋째, 반복적이고 골똘한 상념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박적 성격, 넷째, 무엇이든지 남의 손을 빌어서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자신은 주체성이 없어 타인의 지시와 도움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 성격, 다섯째, 타인의 언행에서 늘 그 동기를 찾으려고 애쓰며 병적인 의심으로 고통을 받는 편집형 성격, 여섯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고 타인의 권익은 뒤로한 채 즉각적인 욕망에만 매달리는 반사회적 성격 등이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금단 증상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15회 이상 반복해 온 40세 남자가 있었다. 그는 동시에 당뇨병도 심하게 앓고 있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중환자인데 건강을 회복시켜 퇴원을 하면 곧바로 자신의 방에 칩거, 계속해서 '깡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지 않아서 저 혈당 상태와 알코올성 정신병 상태가 동시에 오곤 하였다.

또 입원시켜서 수일이 지나면 주치의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 등의 고 칼로

리 간식을 몰래 반입해서 먹어 치우는 바람에 알코올 금단성 혼수상태(진전 섬망)와 고혈당성 혼수를 번갈아 반복하곤 하였다. 게다가 고 혈당을 예방키 위하여 인슐린이 혼합된 링거 주사를 꽂아 놓으면 "귀찮게 별 짓 다 한다"며 간호사의 눈을 피해 급속히 틀어 놓는 바람에 저 혈당 쇼크에 빠지기가 일쑤였다.

그 환자에게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왜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설명하였지만 같은 설명을 수 십 회 반복할 때마다 그는 "아 그렇습니까?"라며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감동 어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식사시간에 정해진 양 이상을 먹지 못 하게 하면 화들짝 역정을 내며 "더러워서 못 있겠다. 퇴원시켜 달라"라는 과민 반응을 보였다.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이라는 물음에는 "장사 속으로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인간"이라는 답을 적어 주치의에 대한 적개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거기에 대해 "당신의 목숨을 수도 없이 구해 주는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비굴하게 웃으며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입원만 시키는 우리 어머니에게 화가 난 것이죠"라며 딴청을 피웠다.

그는 대졸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 하는 무능력과(부적합 성격) 천 원짜리 소주 한 병 살 돈도 꼭 '엄마'로부터 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 심리적 의존(의존성 성격), 그리고 '엄마'와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피동 공격형 성격)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사고(思考)와 행동을 보였다.